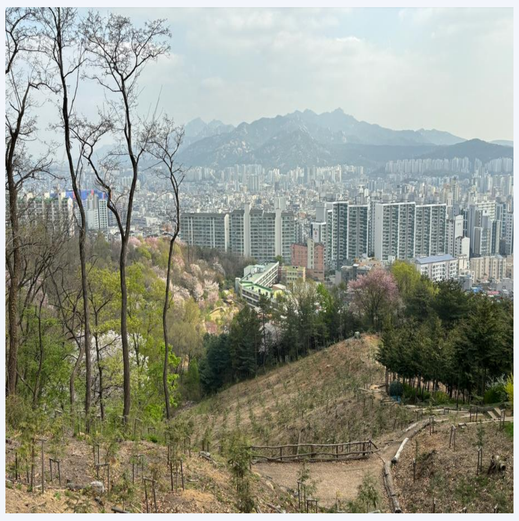
숲을 향한 의지 : 서울 봉산 편백숲 개발을 둘러싼 마찰

김흥준(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연구 관심 및 연구 질문



(2023년 벌채 후 편백나무를 조림한 구역)



(2014년 경 조림한 봉산 내 편백숲 등산로 구역)

이 연구는 서울시 은평구 봉산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개발 정책을 둘러싼 마찰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숲이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 개발 정책을 비롯한 인간의 인위적 개입이 만들어낸 자연문화(natureculture)일 때,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어떻게 숲에서 관계 맺거나 단절되며, 그 과정에서 숲이라는 경관을 만들어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봉산에서 은평구청은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시민단체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숲을 모두 베기 후 진행되었던 점을 비판하고, 숲 모니터링과 탐조 활동을 통해 기존의 숲에 존재했던 다종적 연결을 추적하며 개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펼쳐지는 봉산이라는 현장에 연구자는 네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현재 봉산의 자연문화적 경관은 한국의 치산 녹화 및 숲가꾸기 정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둘째, 현재 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편백숲 조성사업은 어떻게 등장했으며, 사업을 가능케 하는 정책 합리성은 무엇인가?

셋째, 봉산생태조사단은 봉산 편백숲 조성사업을 어떻게 문제화하고, 어떠한 다종적 서사를 구축하고 있는가?

넷째, 봉산 편백숲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의지와 의미화 속에서 진행되는 편백숲 조성사업이 봉산의 자연문화적 경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1장 – 숲으로 들어가기



(높게 뻗어있는 봉산의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는 40년쯤 되면 쓰러져요. 아까시나무가 넘어지고, 새로운 나무가 나오는 이 시기가 지나야 숲이 좋아집니다.
(봉산 참여관찰 중 딱따구리보전회 대표, 조경학 교수 A 2024.05.14.)

20~30 년이 지나면 아까시가 안 자라요. 더군다나 토양이 안 좋은 곳에서 그 정도가 되면 생장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하고 경쟁해서 얘(아까시)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70년대 쯤 심었다고 보면 지금 벌써 5~60년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생장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김민혁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2025.05.20.)

(인터뷰 연구 참여자는 익명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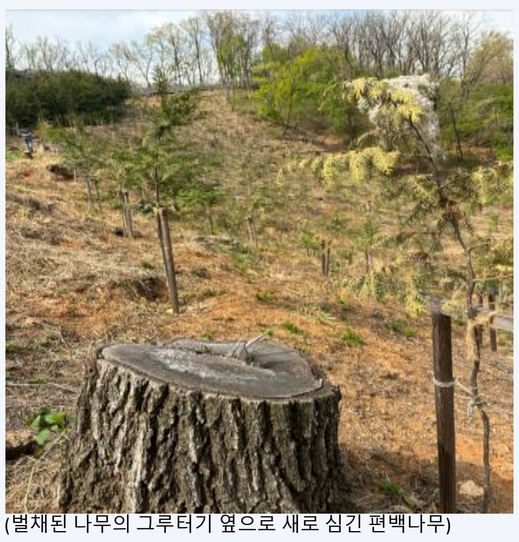
봉산은 한국의 민둥산이 숲이 되는 과정에 거쳐 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과 같은 국가 주도의 정책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았다. 국가 주도의 치산 녹화 정책 진행 당시 집중적으로 조림되었던 아까시나무가 현재 봉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수종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산림청은 은평구가 편백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봉산 일대를 4영급~5영급, 주요 수종은 아까시나무, 참나무로 파악하고 있다. 대규모 조림 이후 50년이 흐른 지금, 과거 인위적인 조림 정책을 통해 형성된 봉산은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저하라는 새로운 문제 앞에 또다시 인간의 개입과 관여를 맞이했다.

은평구청은 탄소 흡수 능력 저하 해결을 위한 산림의 영급개선을 편백숲 조성 정책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고령화된 아까시나무의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만큼, 해당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 능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산림 정책의 결과가 현재의 새로운 산림 개발 정책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제작된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이면에는 다양한 수종 간의 경쟁과 공존, 생태적 변화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정책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숲을 추상화된 객체로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숲이 지닌 고유한 맥락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다. 인류학자 칭(Tsing 2019)이 지적한 모듈식 단순화(modular simplifications), 다시 말해 한 지역 내에 살아 있는 존재들을 단 하나의 종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넘어서, 각각의 숲이 지닌 고유하고 구체적인 맥락을 면밀히 포착할 필요가 있다.

2장 – 숲을 마주하기



(벌채된 나무의 그루터기 옆으로 새로 심긴 편백나무)

작년 벌목 당시 벌목된 나무 수종과 나이를 조사할 때 제가 거기 그루터기에 머물고 있는 청딱다구리를 봤는데요, 제가 처음 본 딱다구리인데 너무 신비롭게 생겨서 인상적이었고, 또 그 청딱따구리를 보는데 둥지가 베어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정이입이 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자꾸 눈에 밟혔는데, 그 벌목된 숲에 또 다른 새들도 많이 살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게 마치 재개발로 쫓겨난 주민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숲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숲의 생태에 대한 깊이 있는 대응이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지역 주민에게 어렵지 않고 더 공감하기 좋게 알릴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같이 생태조사 하는 덕환님이랑 탐조를 해보면 좋겠다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봉산생태조사단 자영 2024.05.30.)

봉산생태조사단이라는 지역의 환경 단체는 편백숲 조성사업에 대응하며 봉산에 존재하는 다종의 연결망과 서사를 구축했다. 구청이 벌채하는 아까시나무와 같은 고령목이 실제로는 딱따구리를 비롯한 봉산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들은 새를 관찰하는 탐조 활동과 베어진 나무의 수를 세고, 새로 심겨진 편백나무의 생장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종적 서사를 좇았다. 이들에게 탐조와 현장 모니터링 활동이 단순한 생태 정보의 수집을 넘어, 숲에 대한 감각적·정서적 접속을 가능케 하는 통로였다.

모니터링은 숲을 알게 되는 인식의 통로였고, 숲의 문제적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감각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게 하는 관계적 실천이었다. 또한 관계적 실천을 통해 제작한 자료들은 개발 반대 활동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다시 말해, 숲 모니터링은 숲을 대상이 아닌 관계 속의 존재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고, 인간과 비인간, 숲과 정책 사이의 접점을 형성케 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과거 개발에 대응했던 환경 단체의 문법과는 달랐다.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깃대종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방식이 대다수였다면, 봉산생태조사단은 특정 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 종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망을 중심으로 봉산 생태계를 포착하고, 타종들과 함께 개발에 대응하는 인간-비인간 동맹을 구축했다.

나아가 이러한 다종적 세계를 타인과 공유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숲개발에 대응하는 동맹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실천은 인간과 비인간 생명의 생계와 필요가 고려되는 공동의 세계를 구성하는 다종 정의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3장 – 숲에서 어긋나기

고양시 쪽 봉산은 숲에 막 고사목들이 쓰러져 있잖아요? 그게 숲이죠. 막 넘어가야 하고, 거미줄도 있고, 헤쳐 나가야 하는. 그런 익스트림한 길이 안 보여도 주민들은 그래도 다 알고 다녀요. 그게 진짜 자연이고 숲이죠. 자연은 사람이 건드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더 이상 자연이 아니죠. 사실 고사목도 다른 나무들에 걸려 있지, 바로 사람한테 쓰러지지 않잖아요. 세심하게 살피고 그걸 베면 되는 거죠.
(봉산생태조사단 자영 인터뷰, 2025.06.06.)



(편백숲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고양시 쪽 봉산의 나무들)

보호를 해야 하는 숲, 휴양을 위한 숲, 경제적 활용을 해야 하는 숲. 숲의 목적이 다 달라요. 숲의 목적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원축적가설에 따르면 보존을 위해서 숲을 그냥 잡고 있는 것도 맞지 않아요. 물론 생물 종 다양성의 입장에서는 활엽수림, 고산지대에 있는 숲이 좋죠. 경관적으로 보면 침엽수림이 좋고요. 도시숲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을 위한 숲, 등산로 잘 된 숲이 좋은 숲입니다. 숲의 가치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생물 종 다양성 입장에서 보면 도시숲이 인간 입장에서는 좋아도, 연결공간이 끊어지고, 파편화되고, 등산로 때문에 다양성이 뚝 떨어진 좋지 않은 숲이에요.
(강원대 산림과학부 정지민 교수 인터뷰 2025.03.28.)

아주 긴 관점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자라는 건 지금 입장에서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무들이) 40년, 50년 되어 가지고 건강성이나 이런 게 나빠지니까, 다른 나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산사태로 도시는 피해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해요. 만약 안 하고 놔두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만 했다고 그럴 거예요.
(강영원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 2025.04.18.)

하지만 봉산생태조사단의 다종적 실천은 제도 정치의 장에서 '유효한 지식'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현장 기반의 다종적 지식은 제도적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 채 다른 지식 간의 위계를 드러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숲에 대한 이해의 간극을 확인한 구청과 봉산생태조사단의 소통이 완전히 끊긴 것이다.

봉산생태조사단의 다종적 실천에 대한 의지는 숲에 대한 다른 의지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마찰했다. 특히 산림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산림 정책의 합리성은 봉산 편백숲 조성을 가능케 하는 또다른 의지였다.

산림과학자들은 현재 한반도 산림의 구조적 노쇠화를 문제화하며, 고령화된 숲의 일부를 벌채하고 어린 나무를 조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조성하는 길이라며 구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봉산 숲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구청은 이러한 산림과학의 의지를 편백숲 조성의 정책적 근거로 동원하며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정책의 장 안에서 펼치고 있었다. 편백숲 개발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구청-산림과학자 간의 정책적 동맹이 존재했으며, 편백숲을 만족하며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 역시 개발을 가능케 하는 동맹의 주요한 행위자로 작용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은 편백숲 조성 과정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지들의 마찰이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청의 단일한 의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봉산은 복수의 의지가 충돌하는 와중에, 특정한 진실과 의지가 절대적 우위에 놓이는 정치적 장이다.

결론 – 다른 숲 정치를 상상하기

다종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인간 내부의 불평등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간의 불평등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의 숲 개발은 가능한 것일까?

이 연구는 봉산 편백숲 조성 현장을 하나의 정치적 장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숲 정치'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때 숲 정치란, 숲 혹은 산림과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이 이해당사자로 얽혀 협력과 갈등을 겪는 상황 속에서, 산림 자체와 그것의 활용 및 보전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사회적 맥락을 결합해 조정과 통합의 작동 원리를 탐색하는 과정(Clawson 1975)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숲 내부의 다양한 존재들과 숲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 전반을 숲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숲 정치의 주요 이해당사자로 숲 내부의 거주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봉산생태조사단의 모니터링과 탐조 활동에서 볼 수 있듯, 숲의 역동은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종들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숲 정치의 주요한 결정 과정, 다시 말해 숲 관련 정책의 계획, 집행, 운영 등의 전 과정을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숙의적 과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의 변화를 통해서,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들을 보다 사려 깊게 고려하는 다종적 숲 개발이라는 상상력을 실현해볼 수 있을 것이다.